돌봄공백 해소 '남빛돌봄' 설계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솔루션팀 첫 회의 개최

현장 실무자들 참여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무안청사에서 '남빛돌봄 솔루션팀' 첫 회의를 열어 시민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27개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남빛돌봄' 모델 설계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시·군·구 통합돌봄 실무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솔루션팀은 특별시가 정책을 수립해 시·군·구에 전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가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남빛돌봄'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고, 도시·농어촌·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모델이다.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틀을 보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공공이 책임지는 '남빛기본돌봄'과 주민·공동체가 서로 살피는 '남빛공동체돌봄'이다.

남빛기본돌봄은 소득·연령·재산·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공공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남빛공동체돌봄은 공적 서비스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상 속 돌봄 공백을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메우는 방식이다.

'필요한 돌봄은 공공이 든든하게, 일상의 돌봄은 이웃이 다정하게'라는 방향 아래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돌봄 인프라를 고려한 유형별 돌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기본돌봄센터 등 공공 돌봄거점을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체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남악=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내일 '미래직업·온마을체험학습' 축제

성동구, AI·로봇·드론등 44개 체험부스 운영

글로벌 문화체험·자연 놀이터·퀴즈쇼 진행도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가 7일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일대에서 '성동 미래직업 체험 & 온마을체험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과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학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와 지역내 온마을체험학습장이 참여해 총 44개 체험 부스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에서는 '미래직업축제'를 열고 인공지능(AI) 캐릭터 스튜디오, 로봇 축구, 드론 미션, 가상현실(VR) 심폐소생술 등 2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로봇 쇼와 미래기술을 활용한 마술쇼도 진행한다.

인근 전관원어린이공원에서는 '온마을체험학습축제'가 열린다. 지역 체험학습 기관들이 참여해 글로벌 문화체험과 자연 놀이터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퀴즈쇼, 서커스쇼, 버블쇼 등 공연도 마련한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어린이와 학부모 등 성동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입장 팔찌를 구매하면 두 축제의 체험 부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보화 구청장은 "아이들이 미래기술과 마을의 배움을 함께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를 넓혀, 모든 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김동욱 구청장이 '2026년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동대문구, 8일 초등생 'AI·로봇 경진대회'

32팀 128명 참가… 로봇 축구등 4개 종목 겨뤄

단계별 AI교육 마지막 일정… 학생·학부모 호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오는 8일 구청 2층 강당에서 초등학생 128명이 참가하는 '2026년 제1회 동대문구 AI·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회는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 4명씩 32개 팀을 구성해 로봇과 인공지능(AI) 2개 부문, 4개 종목에서 겨루는 방식이다. 3~4학년은 '로봇 조립 및 측구 대결'과 'AI 색깔 표지 수집 대결', 5~6학년은 '로봇팔 화물분류'와 'AI 과제 이어달리기 경주'에 참가한다. 종목별로 8개 팀이 출전한다.

학생들은 대회에 앞서 종목별 전문교육과 경기 규칙, 안전수칙, 전략 교육을 받았다. 여름방학 AI 교육 캠프 수료자에게 우선 접수 기회를 주되 일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 기초교육에서 방학 심화체험과 경진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의 단계별 AI교육 과정 중 마지막 일정이다.

앞서 4월27일~7월9일 운영한 '2026 찾아가는 AI 스쿨'에는 지역 초등학교 12곳의 4~6학년 43학급, 932명이 참여했다. 전문강사가 교실과 컴퓨터실을 방문해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습·제작·발표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3D펜 모형 제작, 디지털 동화책 만들기, 스마트팜 도시 만들기, 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이며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2점으로 조사됐다. 7월27일~8월6일에는 안평초등학교·답십리초등학교·서울대학교에서 '2026 동대문구 AI교육 캠프'를 운영했다. 3~6학년 89명이 4일간 드론과 AI 로봇, 로봇 조립·코딩, 자율주행 등을 체험하고 서울대 탑방 및 대학생과의 공동 과제해결 활동에 참여했다.

학부모 62명의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2점이었다. 좋았던 활동으로 대학생과의 교류·공동 과제해결을 꼽은 응답자는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 캠프가 모집 정원을 초과해 조기 마감됨에 따라 구는 겨울방학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도봉구·도봉署,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정보 공유·협력 맞손

치안협 회의서 섭테드 적용 논의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최근 도봉경찰서 비전홀에서 '2026년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는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민·관·경이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김동욱 구청장이 위원장을, 유미숙 도봉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구와 도봉경찰서, 도봉구의회, 도봉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청소년·안전·범죄예방 분야 민간 협력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감시 카메라(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 생활 속 범죄 예방 등 3개 분야 6개 안건을 중심으로 협력 과제를 살폈다. 먼저 감시 카메라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에서는 도봉구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아레나 개관에 따른 치안 수요와 관제 필요성 증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해 상담·교육·자립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신고·상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협업 과제도 다뤘다.

생활 속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창2동 마을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적용, 피싱범죄 예방 홍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무기류 자진반납 보상제 도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마을 누비며 '주민 건의' 처리 결과 공유

마포구, '주민과의 대화' 개최

11~20일 16개洞 순회 예정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제2회 주민과의 대화'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7월에 열린 '제1회 주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 192건의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구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 직후 열린 첫 행사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 192건의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구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관 국장이 직접 건의 사항별 처리 결과와 추진 상황을 설명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설명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명 자료는 발표 자료(PPT)로 제작해 건의 사항별 처리 결과와 추진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어 유동균 구청장이 민선 9기 구정 비전과 주요 공약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행사는 11일 신수동·염리동·대흥동을 시작으로 20일 성산1동·서교동까지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은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견에 답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구민들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내일 '청소년 미래교육 한마당'

강서구, AI등 19개 부스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7일 마곡중앙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치고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 강서 청소년 미래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청소년 공연마당'과 '미래교육 체험마당'으로 나뉜다. 공연마당에서는 지역내 초·중·고 청소년 동아리들이 밴드와 댄스 공연을 선보인다. 미래교육 체험마당에서는 학교 동아리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19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봇 축구와 드론을 활용한 동물 구조 미션, VR 태양계 탐험, 인공지능 영상 구별 퀴즈 등이다. 체험부스 4곳을 이용하고 도장을 모은 참가자에게는 '인생네컷' 촬영권도 제공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강동구, 내달 1일 '대입전략 온라인 특강'

대입제도 주요 변화등 안내

'미래온'서 선착순 신청 접수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2월1일 오후 7~10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2029 대입전략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서울대·고려대·건국대 대입 전형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원석 인천하늘고등학교 3학년 부장 교사가 맡는다. 김 교사는 2시간 동안 대입 제도의 주요 변화와 준비 전략을 설명하고, 나머지 1시간은 실시간 질문에 답한다.

참가 신청은 지난 3일부터 강동구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특강도 해당 포털에서 생중계한다.

강동구민은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강북구, 오는 13일 '창업포럼'

AI 시대 창업환경·전략 논의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2026 강북창업포럼'을 개최한다.

'AI가 바꾸는 창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 기회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송민용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미키김 액트투벤처스 대표, 환성철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창업지원 정책과 글로벌 산업 동향, 디자인·브랜드 전략 등을 다룬다.

먼저 송민용 회장은 'AI 시대의 창업환경과 정부 지원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 확산에 따른 창업 생태계 변화를 짚고,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예비·초기 창업자가 주목할 사업화 기회를 소개한다. 이어 미키김 대표가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시장과 소비자,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기탁식에서 조용호 시장(왼쪽)이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성지교회 사랑의 쌀 100포 기탁 받아

경기 오산시는 지난 4일 오산성지교회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산성지교회는 2022년부터 매년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하며 올해로 5년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백미는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식생활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덕수 담임목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시장은 "5년째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오산성지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은평구, '치과치료비·효도의자' 지정기부 모금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와 노인 보행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지난 10월30일부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자는 '저소득층 비급여 인공 치아(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비 지원사업'과 '효도의자 설치사업' 가운데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정기부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특정 사업에 모금하는 방식이다.

치과 치료비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와 보철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효도의자 사업은 노인들이 장보기나 산책 등 외출 중 쉬어갈 수 있도록 골목길에 의자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모금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목표액은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 효도의자 설치사업 1000만원이다. 참여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홈페이지 '고향사랑이(e)음' 또는 '위기브'에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고 외출길에 잠시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이웃의 일상을 돕고자 한다"며 "기부자의 마음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양천구, 12·13일 생성형 AI 창작 전시회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천문화회관 별관 1층 전시관에서 '2026년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그림과 동화책,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선보이고 관람객이 직접 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의 정기강좌와 방학특강, 가족특강 등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로, 인공지능 웹툰과 한글 디자인, 음악미술관 등 교육과정에서 탄생한 작품 77점이 전시된다.

특히 'Y교육박람회 2026'과 연계해 열린 '제2회 생성형 AI 포스터 경진대회' 수상작 13점과 코딩 지식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앱과 게임을 제작하는 '바이브 코딩' 작품 10점도 선보인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구로구, 공약사업 담당직원 역량 강화 특강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구로구는 지난 4일 구청 본관 3층 창의홀에서 공약사업 담당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맡아 '에이지 오브 그레이트 리셋(Age of GREAT RESET), 구로구 매니페스토 2026'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과 공약 목표 달성 및 이행 완료 기준 등을 설명했다.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공약계획 점검과 변경 절차,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주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과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안산시, 27일 파워셀러 온라인 마케팅 교육

경기 안산시는 시민들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우수 판매자(파워 셀러) 5회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 마케팅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전략과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품 등록부터 검색 노출, 고객 유입을 위한 홍보 전략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과정을 배우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실습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3동 1층 다목적실(상록구 해안로 705)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활용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운영 실무 ▲상품 등록과 상세 페이지 제작 실습 ▲상품 검색 노출 최적화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온라인 상점 방문자 확대를 위한 홍보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다.

안산=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